

공손법 관점에서 본 거절화행의 실현양상

- 가족지위와 직장지위를 중심으로 -

허상희*

|| 차례 ||

1. 머리말
2. 선행연구
3. 이론적 토대
 - 1) 거절화행의 개념
 - 2) 공손의 개념 및 체계
 - 3) 거절화행과 공손의 관계
4. 사회적 요인에 따른 거절화행의 실현양상
 - 1) 가족지위에 따른 분석
 - 2) 직장지위에 따른 분석
5. 맺음말

【국문초록】

이 연구는 거절화행과 공손의 개념을 토대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요인 중 가족지위와 직장지위에 따라 거절화행의 실현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거절화행은 본질적으로 공손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화자가 의사소통 목적을 달성하고 대화자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위해서는 공손표현을 잘 사용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거절화행에 나타나는 공손성을 드라마 대본에 나타나는 가족과 직장지위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두 집단이 지니고 있는 특성으로 인해 그에 사용하는 거절화행의 실현양상도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공손과 거절화행의 관계 규명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에 따라 실제 쓰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공손, 거절화행, 사회적 요인, 가족지위, 직장지위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 머리말

이 연구는 거절화행과 공손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요인 특히 가족지위와 직장지위에 따라 거절화행에서의 공손성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실현양상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거절화행은 요청, 제안, 약속과 같은 선행발화에 대해 비선호적으로 대응하는 반응발화이다. 거절화행은 상대방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상대방의 마음이나 체면을 상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편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인관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화자는 거절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적절한 언어사용은 곧 공손표현¹⁾이 될 것이다.

공손은 화자가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성취하고, 대화자 간의 의사소통의 원활함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대화자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최대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상대방에게 부담이 덜 되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할 것이다. 특히 거절화행과 같이 상대방의 체면을 상하게 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화행일 경우, 화자는 더욱 자신의 언어표현에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거절화행은 본질적으로 공손을 거스르는 행위이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어그러지지 않고 잘 유지될 수 있는 의도적인 측면에서의 공손표현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공손법과 밀접하게 관련된 거절화행에 대해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거절화행은 대화상황이 아니면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방송 드라마 대본²⁾을 자료대상으로 삼았다. 드라마 대본은

1) 허상희(2010:260)에서는 공손의 언어내용적 측면, 관계적 측면, 상황적 측면에 따라 공손표현을 ‘청자를 배려하는 표현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긍정적 내용의 발화의도를 드러내는 모든 언어적 장치들’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적 자료는 아니지만 준구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상황이나 관계 속에서 언어현상을 정확한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가족과 직장지위에서 발생하는 거절화행에 한정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들은 개별화행을 중심으로 분석해왔다. 구체적인 사회적 요인을 분류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공손과 거절화행의 개념을 살펴보고, 거절화행이 공손 체계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공손과 거절화행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을 한정하고 이에 따라 실제 쓰임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선행연구

개별화행에 나타난 공손성에 관한 연구는 크게 비교언어학적 관점, 사회언어학적 관점, 대화전략적 관점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2) 드라마 방송 대본은 한국 방송 공사의 ‘좋은 길 어떡해(1화-30회)’, ‘아내와 여자(1화-10회)’, 문화 방송 공사의 ‘보고 또 보고(1화-30회)’, ‘이브의 모든 것(1화-20회)’이다. 거절화행의 예문은 총 246개이며, 이 중 가족지위에서 나타나는 거절화행은 90개, 직장지위에서 나타나는 거절화행은 48개이다. 일일드라마의 대부분은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하므로 많은 예문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직장관계를 중심으로 한 드라마는 거의 없을 뿐더러 그 중 거절화행의 예문을 찾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이 논문에서 계량적 연구를 하지 않은 것은 계량적 연구를 할 만큼의 자료가 구축되지 않았고, 질적 연구가 구축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자료에 따라 달라져 결과의 신뢰성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계량적 연구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타당한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계량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 역시 그 한계를 넘지 못하지만 자료를 통해 거절화행의 공손성이 거절하는 대상, 나이, 성별, 심리적 거리, 상황의 특수성 등의 여러 요인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것에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편의상 예문의 출전은 생략하기로 한다.

비교언어학적 관점의 연구로는 이성만(2005), 조용길(2005) 등을 들 수 있다. 이성만(2005)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사과행위를 대화커뮤니케이션에서 사과의 배치전략에 따라 그 의미와 양상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 논의에서는 공손이 상호행위 전략이 아닌 화자가 청자에 대해 갖는 사회적인 척도에 근거한 호의로 보고 있다. 조용길(2005)에서는 독일어와 한국어의 거절화행에 나타난 공손현상을 비교하고 있다. 직장 내에서의 거절화행에 나타나는 공손현상을 통해 문화적 차이가 드러남을 기술하였다.

사회언어학적 관점의 연구로는 강길호(1992, 1994), 고인수(1994), 이원표(1996), 이정희(2003) 등이 있다. 강길호(1992)에서는 브라운과 레빈슨(Brown & Levinson, 1987)의 공손전략이 한국어의 요청상황에서 상당히 서열적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어 강길호(2004)에서는 설득의 메시지에 나타난 공손표현과 설득효과와의 관계에 성별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조사하였으나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인수(1994)에서는 한국어의 요청행위에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공손성에 관한 경험적 조사를 위해 타언어와의 사회언어학적 공손성의 구현 체계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경험적 증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원표(1996)에서는 한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칭찬과 관련된 행위를 살펴보고, 미국 대학생들과 중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던 첸(Chen)의 결과와 비교하여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발견된 차이를 설명하였다. 이정희(2003)에서는 거절표현과 공손법의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남녀간 공손법의 차이점을 증점적으로 대조하였다.

대화전략적 관점의 연구로는 전정미(2007) 등이 있다. 전정미(2007)에서는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요청화행을 수행해야 할 때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동시에 목적하는 수행을 성취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화용 전략을 공손전략이라 하여, 그 실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 이외에 권혜선(2006)에서는 우리말 거절표현의 개념과 종류를 살피고 각각의 거절표현에서 나타나는 공손성의 정도를 발화 형식의 공손성, 발화 내용의 공손성, 발화 내용의 방향성을 고려하여 살펴보았다. 허상희(2010)는 공손표현에 대한 연구로 공손의 개념과 유형, 공손표현의 체계에 관여하는 요인에 따라 공손표현 체계를 수립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요인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이에 따른 실제적 쓰임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상의 연구를 검토해 볼 때, 개별화행에 나타난 공손은 인간관계를 보다 잘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논의되었으며,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의사소통능력을 확인하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의 선행연구는 주로 개별화행에 대한 총체적인 공손성 연구였다. 직장이나 성별에 따른 일부 사회적 요인에 따른 분석이 있었으나 앞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가족과 직장 지위를 중심으로 거절화행의 공손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3. 이론적 토대

1) 거절화행의 개념

거절화행³⁾을 이해하기 전에 대화행위 곧 화행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화행의 개념은 철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일부 철학자들이 대화를 인간 행동의 관점에서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이때는 논리적 실증주의가 발달했는데, 그 주요원리가 ‘모든 문장은 진리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결혼 축하해’와 같이 실제로 진리치를 따질 수 없

3) 거절화행의 전반적인 이해 즉 거절화행의 특성, 정의, 유형, 특징에 관해서는 허상희(2003)를 참고할 것.

는 문장들도 많다. 이러한 시점에 비트겐슈타인(Wittgenstein)이 반기를 들었으며 ‘의미는 사용(use)’이라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후에 오스틴(Austin)이 대화행위이론을 주창하고, 오스틴의 제자인 쉘(Searle)이 더욱 체계화하고 발전시켰다.

말하는 것은 곧 행위를 수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관점에서 화행을 발화행위(locutionary act),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발화효과행위(perlocutionary act)로 구분하였다(셸, 1969). 의사소통 상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발화수반행위이다. 이 발화수반행위를 화행으로 인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화행을 단순히 발화수반행위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지향하는 의사소통행위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볼 때 거절화행은 화자와 청자가 순서교대(turn-taking)를 하며, 대화를 이룰 때 선행발화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난다. 그 반응은 선호범주(preferred category)와 비선호범주(dispreferred category)로 나눌 수 있는데, 요청에 대해 허락은 선호적 받는 말이 되고, 거절은 비선호적 받는 말이 된다(레빈슨(Levinson, 1983)).

이처럼 거절화행은 비선호적 받는 말인데, 선행화행으로는 제안이나 요청, 약속 등과 상관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거절화행은 의사소통행위로 화자의 제안, 요청, 약속 등에 대해 나타나는 비선호적인 반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공손의 개념 및 체계

공손(恭遜)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공손은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에게 예의바르며, 다른 사람에게 겸손하게 행동함을 말한다. 공손 개념에 대한 사전적 정의(허상희, 2010:22)를 살펴보도록 하자.

(1) ‘공손’의 사전적 정의

- ㄱ. [연세한국어사전] 예의 바르고 겸손함
- ㄴ. [표준국어대사전] 말이나 행동이 겸손하고 예의 바르다. 손공하다.
- ㄷ. [국어대사전] 공경하고 겸손함, 고분고분함
- ㄹ. 웹스터(Webster) 사전⁴⁾
 “showing or characterized by correct social usage: marked by or exhibiting an appearance of consideration, tact, deference, courtesy, or grace resulting from sincere consideration of others and sometimes from mere regard for etiquette”
- ㅁ. 콜린스(Collins) 사전
 “Someone who is polite has good manners and behaves in a way that is socially correct and not rude to other people.”

공손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면, 예의바름, 대우, 존경, 경의, 헤아림, 배려, tact, socially correct, 체면 세워주기 등의 단어로 정리해볼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긍정적 가치의 개념들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 개념으로서의 공손은 실제 대화 상황에서 다양한 가치들로 표현된다. 예컨대 상대방 존중, 상대방 배려, 사회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라는 인식으로 인한 긍정적 자아 이미지 형성, 재치와 기지로 인한 긍정적 인간관계 형성, 이전의 갈등해소, 다음 행위의 부담 줄이기 등이다. 이들은 공손의 하위 기능으로 볼 수 있겠다.⁵⁾ 이러한 공손은 우리말에서는 경어법을 포함한 공손표현에

4) 조준학(1986:298)에서 재인용

5) 조용길(2006:152-3)에서는 공손행위의 기능적 하위유형으로 다음을 말하고 있다.

- (1) 행위이행의 부담 줄이기 : 상대방의 자율영역의 보호
- (2) 상호간의 갈등해소
- (3)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
- (4) 친밀감의 부가
- (5) 형식적 공손
- (6) 행위의도의 효과적 관철

서 잘 드러난다.

이러한 공손표현에 관여하는 요인으로는 크게 언어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언어적 요인은 화자의 발화의도로 실현되며 사회적 요인은 상황과 화·청자 사이의 ‘힘’과 ‘거리’로 드러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의 특성은 ‘상황’, ‘힘’, ‘거리’라는 개념으로 나타낼 수 있다. 즉, 공손의 정도는 주어진 상황과 언어표현에 나타나는 힘과 거리에 의해서 공손 또는 불손이 드러나는 것이다.⁶⁾

힘 요인에 따라서는 위계공손체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거리 요인에 따라서는 분위기나 참여자와의 이전의 관계에 상관없이 서로를 공손히 대하는 상호공손체계가 있다. 이것은 심리적 또는 상황적 거리가 먼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심리적·상황적 거리가 가까운, 참여자의 유대감이나 친근함에 따르는 유대공손체계가 있을 수 있다. 상황 요인에 따른 체계는 공적인 경우 서로 공손히 대하는 상호공손체계와 사적인 경우 서로의 친밀감을 교감하는 유대공손체계가 있다. 따라서 공손체계는 위계공손체계, 상호공손체계, 유대공손체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허상희, 2010:61-2).

(2) 요인에 따른 공손체계

요인		공손체계
힘	[±힘]	위계공손체계
거리	[+거리]	상호공손체계
	[-거리]	유대공손체계
상황	[공적]	상호공손체계
	[사적]	유대공손체계

(n)

6) 경어법을 포함한 공손표현이 ‘힘’과 ‘거리’ 관계에 따라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이정복(1997, 2005, 2006), 허상희(2010) 등에서 살펴본 바 있다.

그런데 공손표현의 체계는 독립된 세 체계로 나누어지지만, 이들은 상호 보완적으로 움직인다. 공손표현의 체계는 먼저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에 상관없이 대화의 상황을 고려하고, 그 후 대화 참여자들의 관계를 고려하여 힘과 거리의 조절을 통해 위계공손, 유대공손 아니면 상호공손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3) 거절화행과 공손의 관계

거절화행은 화자의 제안, 요청, 약속 등에 대해 나타나는 비선호적인 반응으로서 화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상을 줄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관계도 손상시킬 수 있다. 긍정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절화행을 공손에 기초해서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오늘 영화 보러 갈까’라는 요청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거절화행들이 사용될 수 있다.

- (3) 가. 싫어.
 나. 정말 귀찮게 하네.
 다. 나 바쁜데.
 리. 미안한데, 오늘 과제가 있어 내일 가면 안 될까?

(3)의 표현들에서 상대방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원한다면 주로 (리)를 사용할 것이다. 이는 공손이 거절화행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거절화행은 거절하는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거절화행의 표현이 달리 사용될 수 있다. 앞서 공손체계가 ‘힘’, ‘거리’, ‘상황’ 세 요인에 의해 위계공손체계, 유대공손체계, 상호공손체계로 나뉘어 살피 보았듯이, 거절화행 속의 공손체계 또한 위계공손, 유대공손, 상호공손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4) 거절화행 속의 공손방식

대화참여자의 관계 또는 상황	공손방식
[±위계]	위계공손
[+거리], [공적]	상호공손
[-거리], [사적]	유대공손

대화참여자와의 관계 또는 상황에 따라 어떠한 거절화행을 사용할 것인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청자가 상하관계로 위계공손 방식일 때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거절할 때 선택하는 거절화행의 방식은 다를 것이다. 그리고 화·청자가 친하지 않는 관계이거나 공적 상황일 경우, 거절하는 사람은 예의를 갖추어 공손히 거절할 것이다. 그리고 화·청자가 친한 사이이거나 사적 관계일 때는 거절하는 사람은 비교적 격식을 갖추지 않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거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 이를 확인하기로 하자.

4. 사회적 요인에 따른 거절화행의 실현양상

이 장에서는 사회적 요인⁷⁾ 중 가족지위와 직장지위를 중심으로 거절화행의 실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둘을 선택한 까닭은 가족과 직장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인접한 공동체인 동시에 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달라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절화행의 공손성을 대별해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족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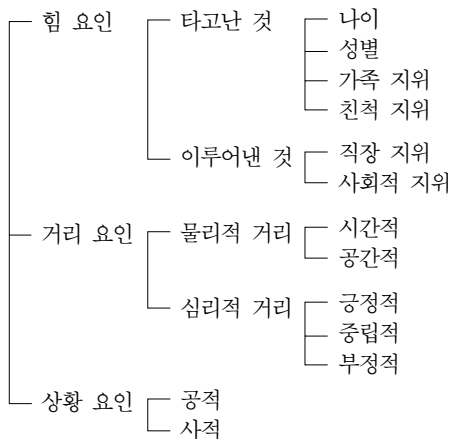
7) 허상희(2010:60-61)에서는 사회적 요인에 따른 상황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해관계(利害關係)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에 비해 직장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의식적으로 구성된 집단이다. 또한 자신의 의도에 따라 이루어낸 것이며 선택가능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거부할 수도 있다. 거절회행에 나타나는 공손성을 통해서도 두 공동체 간의 속성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는 가족지위와 직장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이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사회적 요인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가족지위에 따른 분석

가족지위는 크게 상하관계와 동등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상하관계는 주로 부모와 자식 관계이고, 동등관계는 자매와 형제관계이다. 그리고 부부관계는 지위로 보면 동등하나 부부 사이에서는 위계가 형성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지위를 중심으로 살펴보되 이들의 관계에서 나이, 성별, 심리적 거리, 공적 상황 등의 요인들이 작용하여 거절회행의 방식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상하관계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거절하는 방식을 살펴보겠다.

(5) 미주 : (얼른 옆으로 누우려 하며) 오늘 나 엄마하구 잘래.(하는데)

순자 : **싫어. 니 방 가서 자.**

미주 : (도로 앉으며) 나랑 같이 자는 거 싫어. 엄마?

순자 : **싫다구.**

미주 : 나 귀찮아요?

순자 : 응.

(6) 기 풍 :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아버지.

박교장 : **됐어.** (기정 따준 차에 타는)

기 풍 : 해본 소리예요. 나두.

(5)는 순자(어머니)가 미주(딸)의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장면이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므로, 힘의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우위에 있다. 어머니는 딸에게 해체와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고, 딸은 해체와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딸이 해체를 사용한다고 해서 불손표현인 것은 아니다. 이 때는 모녀 간의 거리가 가까우므로 유대공손이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인 순자는 딸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는데, 이때 사용한 거절화행은 ‘싫어’이다. ‘싫어’는 본래 거절의 의미는 아니나 거절의 의미로 선행화자의 제안이나 요청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싫어’는 거절의 직접화행⁸⁾ 중 강도가 높은 표현이다. 사실 거절화행은 상대방의 체면을 상하게 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절을 행하는 화자 입장에서는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화행으로 강도가 높은 ‘싫어’를 사용한 까닭

8) 거절의 직접화행으로는 ‘아니, 됐어, 싫어, 생각없다, 필요없다, 괜찮다’, ‘안’ 부정, ‘못’ 부정, ‘말다’ 부정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허상희(2003)을 참고할 것.

은 이들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가족관계는 아주 가깝기 때문에 말을 거르지 않고 직접화행을 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6)은 박교장(아버지)이 기풍(아들)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는 상황이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이므로 아버지가 힘의 측면에서 우위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해체를 사용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해요체를 사용하여 공손을 표하고 있다. 아버지는 아들의 제안에 대해 ‘됐어’를 사용하여 거절하고 있다.⁹⁾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아버지는 가정의 가장(家長)으로 권위있는 존재였다. 요즘의 아버지들의 권위적인 태도를 많이 벗어났다고 하지만, 특히 부자(父子) 관계는 부녀(父女), 모녀(母女) 관계보다는 좀 더 형식적이고 무게감이 느껴진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거절을 할 경우에는 다른 표현을 덧붙이지 않고 거절화행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부모가 자식과의 수직관계인 힘 측면과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거리 측면으로 인해 간접적인 표현보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선택한 것이다. 즉, 힘과 거리 요인으로 인해 위계공손과 유대공손을 이룬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상하관계에서 자식이 부모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거절하는지 살펴보자.

(7) 남숙 : (끌고 들어오마) 너 이리 들어와 봐.

태수 : **엄마! 저 시간 없어요.**

남숙 : 나두 저녁 밥 해야돼. 시간 없어. 이리 들어와 봐.

태수 : 엄마!

(7)은 태수(아들)가 남숙(어머니)의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예문이다. 모자(母子)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해체를, 아들은

9) 본래 ‘됐어’는 기본형인 ‘되다’의 기본의미 ‘-이 이루어지다’에서 떨어져 과거형태소인 ‘-었-’이 붙음으로써 과정성이 드러나지 않고 완료·종결의 의미를 가지면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없다’는 거절의 기능을 가지게 된 것이다(허상희, 2004:179).

어머니에게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 아들이 시간없다는 이유를 대며 요청에 대한 거절을 하고 있다. 이유대기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거절형식이다. 조용길(2005:292)에서도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의 밝힘은 설득력 있고 타당한 이유대기를 통해서 완곡하게 표현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부가적인 사과와 표현이나 제안의 표현과 같은 부가적인 공손표현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대표적인 거절 형식으로 이유대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히 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8) 박교장 : 운전할 땐 벗구 해.

기 풍 : **괜찮아요. 아버지.**

(9) 지여사 : 아이 수건 이리 내.

기 풍 : **아이 땀어요.**

지여사 : 빨리 이리 내.

기 풍 : **덜 땀어요. 아직.**

지여사 : 새거 줄 테니까.

기 풍 : **안 젖었다니까요. 땀어요. 새투 꺼낸 거예요.**

(8)은 기풍(아들)이 박교장(아버지)의 요청에 대해 거절하고 있다. 부자(父子) 간의 관계는 수직관계로 앞에서 언급했듯이, 부녀(父女), 모자(母子) 관계보다는 좀 더 권위적이고 형식적이다. 아버지의 요청에 아들이 ‘괜찮아요’와 호격어 ‘아버지’를 사용하여 거절하고 있다. 기풍이 여러 거절화행 중 ‘괜찮아요’를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요청에 대한 거절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것 또한 유대공손이라 볼 수 있다. 이때 ‘괜찮아요’는 거절의 직접화행이기는 하지만 중립적인 의미로 사용된다.¹⁰⁾ 또한 ‘괜찮아

10) ‘괜찮다’가 본래 가진 어휘적 의미는 ‘관계하지 아니하다’인데 그 기능은 어휘적 의

요' 뒤에 호격어를 사용함으로써 거절에서 오는 부담감에 대한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줄여준다. (9)는 기풍(아들)과 지여사(어머니)와의 대화이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해라체와 해체를, 아들은 어머니에게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 아들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때 감탄사와 거절의 직접화행 '됐어요'를 사용하고 있다. 거절표현에 감탄사를 덧붙임으로써 거절에서 오는 부담감을 완화시키고 있다.¹¹⁾ (9)의 경우 거절화행의 구조가 '요청-거절-요청-거절-요청의 이유-거절의 이유'로 이루어지는데, 화자가 계속 요청하자 청자는 거절의 이유를 말함으로써 이들의 대화는 종료된다. 기풍의 마지막 발화를 살펴 보면, 어머니의 요청에 대한 거절로 거절의 이유와 '됐어요'를 중복적으로 발화하고 있다. 만약 기풍이 어머니의 요청에 수락을 했다면, 위의 발화처럼 길어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언어의 도상성(iconicity)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사고의 복잡하고 단순한 정도가 언어 형태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긍정표현이 부정표현보다 단순한 것처럼(그린버그(Greenberg, 1966)), 수용표현이 거절표현보다 단순하다. 하위자의 경우 거절을 할 때 중립적인 표현을 선택한다든가 호격어나 감탄사를 덧붙임으로써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따라서 상위자의 요청이나 제안에 대해 거절을 해야 할 경우에는 거절이 잘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서로간의 관계 유지에도 좋을 것이다.

미와 달리 부정의 의미가 주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허상희, 2007:264).

- 11) 심사하는 가운데 심사자가 실제 10대 청소년이 부모님과 대화할 때 '싫어, 됐어, 필요 없다' 등과 같은 직접화행을 통해 거절하는 일이 적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필자 역시도 심사자의 지적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필자는 드라마 대본에 나타난 자료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예는 발견하지 못했다. 대상 자료가 주로 일일드라마이고, 일일드라마에는 10대보다는 미혼 자식과 기혼 자식이 더불어 등장한다. (9) 예문 역시 미혼 자식과의 대화상황이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다양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10) 배여사 : 몇 칩만 더 먹어봐.

금 주 : **싫다니까. 약 먹구 설사하잖아.**

배여사 : 얼마짜린데 안 먹어. 괜히 심통 나서 하는 소리야. 물 같은 거 많이 안 먹다가 갑자기 약 들어가니까 내일부터 양 좀 줄 일게.

금 주 : **아우 싫어.**

(11) 송자 : 박검사 고모 애긴, 너두 좀 적극성을 띄어서 어떻게 박검사 마 음을 잡아볼 수 없냐구.

승미 : **싫어, 미쳤어 내가?**

송자 : ...

승미 : **재수없어. 정말.**

(10), (11)은 딸이 어머니의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상황이다. 어머니와 딸의 발화를 살펴 보면, 서로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모녀 간의 관계는 수 직관계이므로 ‘힘’의 측면에서는 어머니가 우위에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녀 간의 관계는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므로 서로 해체를 사용하는 것이다. (10)은 금주(딸)가 배여사(어머니)의 요청에 대해 거절의 직접화행 ‘싫다’에 ‘-니까’를 붙여 더욱 강조하였으며 싫은 이유를 덧붙이고 있다. 이에 배여사가 타이르듯 다시 한 번 제안하자, 금주가 거절의 직접화행인 ‘싫어’에 감탄사를 덧붙여 발화하고 있다. 이 또한 거절화행에 감탄사를 덧붙임으로써 거절을 강화한다고 볼 수 있다. (11)에서는 송자(어머니)의 제안에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여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싫어’ 역시 거절의 직접화행 중 가장 직접적인 표현에 속하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미쳤어, 재수없어’라는 비속어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상대가 어머니가 아닌 다른 사람이였다라면, 이러한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가까운 심리적 거리가 작용한 것이다.

부모와 자식 관계 이외에 다른 상하관계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거절하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12) 누워있는 진진의 다리를 주물러 주고 있던 수진이와,

진진 : **이제 그만해. 너두 가서 공부해야 되잖아.**

수진 : 할머니, 다리가 아프실 때 어떻게 아프신 가예요? 막 육신육신 그러세요?

진진 : 말해줘두 넌 몰라. 니가 늙어보면 아파 보면 알지.

수진 : (다시 주무르는)

진진 : **아, 괜잖아. 그만 해. 주물러두 아프구 안 주물러두 아픈걸.**

수진 : 그래두요.

(12)는 할머니(진진)와 손녀(수진)의 대화상황이다. 할머니와 손녀의 관계는 수직관계로 할머니가 ‘힘’의 측면에서 우위에 있지만 심리적 거리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예는 손녀의 호의에 대해서 할머니가 사양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양도 호의에 대한 거절의 일종이다. 이 때 진진의 거절은 거절의 이유를 설명하며 길게 발화하고 있다. 진진이 짧게 거절하지 않고 길게 발화한 것은 손녀의 호의에 대해 고마운 마음과 손녀를 생각하는 마음에서이다. 손녀와의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만큼 거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길게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앞의 예에서 살펴본 심리적 거리가 가까워 직접화행으로 거절하는 모녀 간의 대화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동등관계를 살펴보겠는데, 자매나 형제 관계가 대표적이다. 이들은 가족지위에서 동등하기는 하지만 나이에 의해서 또다른 위계가 형성 이 된다.

(13) 기풍 : (문 열고) 형 오랜만에 한 게임 치자.

기정 : **나가 봐야 하는데...**

기풍 : 친구 와서 나가면 되잖아.

기정 : **(좀 미안함) 시간이 안 돼.**

(14) 금주 : 너 치마 사내. 꼭 월급 타면.

은주 : ...

금주 : 어?

은주 : 깜쪽같이 해줄게.

금주 : **필요없어. 뜯어진 거 너 입구 새루 사 줘.**

은주 : **말 같은 소릴 해라.**

(13)은 기풍(동생)과 기정(형)의 대화상황이다. 먼저 경어법을 살펴보면 서로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형제, 자매 관계에서는 주로 해체를 사용한다. 동생의 제안에 대해 형이 이유를 대며 거절하고 있다. 그리고 동생이 다시 한 번 제안하자 다시 거절의 이유를 말하고 있다. 이 예는 형이 동생의 제안에 간접적인 이유대기로 공손하게 거절하고 있는 것이다. (14)는 금주(언니)와 은주(동생)의 대화상황이다. 먼저 경어법은 서로 해체와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대화내용은 동생인 은주가 옷을 빌려갔다가 옷이 뜯어져 고쳐주겠다고 하자 언니인 금주가 다시 사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생의 제안에 ‘필요없다’는 직접 화행과 다른 제안하기로 거절하고 있으며, 언니의 제안에 동생은 ‘그럴 수 없다’는 거절의 의미로 ‘말 같은 소릴 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자매 관계의 심리적 거리가 가깝기 때문이다. (13)의 형제 관계와 비교해보면, 자매 관계가 형제 관계에 비해서는 위계나 서열이 약하며,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부부관계를 살펴보겠는데, 부부관계는 가족 내 지위는 유사하지만 부부 사이에서는 위계 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것은 가족 지위 내에서

성별이라는 요인이 관여하는 것이다. 누가 누구에게 거절하냐에 따라 거절의 방식이나 공손성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부부의 연령대가 어떠한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15) 미순 : 우리 신혼여행 한 번 더 갑시다. 제주도 거기 신혼여행 때 딱 한 번 가구 못 갔잖아. 우리.

석풍 : **그만 자자. 여기가 제주도다 생각하구 잠이나 자.**

미순 : 정말, 가구 싫다 거기.

석풍 : (마치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는 듯 별떡 일어나며) 당신? 당신 언니하구 다녀오지 그래?

(16) 기준 : 내가 가봐야겠어.

갑진 : 그럴 게 아니라 나두 같이 갑시다. 여보(옷장의 옷을 꺼내려는데)

기준 : **당신까지 왜.**

갑진 : 아니 그럼 나는 집에 앉아서 숙만 타고 있으란 말이에요? 김서방이 수경이를 어찌구 있는지 숙만 까맣게 타고 있으라고요!

기준 : **당신까지 나서면 어머니는 또 얼마나 걱정을 하시겠소. 지금 안 그래도 어머니가 불안해 하실텐데.**

갑진 : (어째야 하나 한숨) ...

기준 : (나도 어째야 하나 한숨) ...

갑진 :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가봅시다 하려는데)

기준 : 아니 아니, (한숨) 관둡시다 관둬. 우리 둘 다 관두자구.

(15), (16)은 남편이 아내에게 거절한 상황이다. 먼저 (15)는 미순(아내)과 석풍(남편)의 대화상황인데, 아내는 남편에서 하십시오체와 해체를 섞어 사용하고 있으며 남편은 아내에게 해체로 일관하지만 ‘당신’이라는 존칭을 사용하고 있다. 신혼여행 가자는 아내의 제안에 대해 잠이나 자자며

말을 돌리며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16)에서는 기준(남편)과 갑진(아내)의 대화상황이다. 기준은 갑진에게 해체, 하오체, 하십시오체 등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아내인 갑진은 하십시오체,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갑진의 같이 가자는 제안에 대해 기준은 당분간 왜 그러냐며 간접적으로 거절하자 갑진이 같이 가려는 이유에 대해 설명한다. 그러자 기준이 자신이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상대방을 수궁시키고 있다. 이처럼 현대시대의 부부관계는 성별의 문제에 있어 남녀가 평등하지만 아직도 가부장적인 의식이 남아 있어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힘을 가진 상위자로 행동한다. 이는 부부관계에서 여자가 연상이라고 해서 여자에게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남자가 가장(家長)이라는 의식이 존재함을 이러한 언어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 (17) 지여사 손에 박교장 얻어온 글리세린 스킨 바르는,
 박교장 : 써보니까 좋죠 확실히(자리 펴는).
 지여사 : 예.
 박교장 : 다 쓰면 양호 선생한테 또 얻어올게요.
 지여사 : **됐어요. 내가 만들어 쓸거예요.**

- (18) 안절부절 못하며 전화하는 재란. 애인의 휴대폰 꺼져있다는 안내 멘트
 창하 : (들어서며) 학부형 간담회 뭐 입구 갈거야? 어떤 옷 다릴까?
 재란 : **나 못 가. 당신이 가.**
 창하 : 오늘 일 안하는 날이잖아.
 재란 : 갑자기 일이 생겼어.
 창하 : 그럼 학부형 간담회 끝나구 가.

(17)과 (18)은 아내가 남편에게 거절하는 상황이다. (17)에서는 서로에

게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남편의 약속에 대해 아내인 지여사가 거절의 직접화행 ‘됐어요’와 거절의 이유를 함께 발화하며 거절하고 있다. 이 예 이외의 대화에서 지여사가 박교장에게 거절할 때 ‘됐어요’를 주로 사용하였다. 이는 다른 거절의 직접화행에 비해 ‘됐어요’가 지닌 중립적인 의미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등장인물 박교장과 지여사는 50, 60대의 인물로서 학교 교장, 교장 사모님으로서의 지(知)와 인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존대를 하며, ‘됐어요’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선택한 것이다. 이에 반해 (18)의 예는 30대의 부부이다. 이들은 앞의 중년부부와는 달리 서로에게 해체와 해라체를 사용하고 있다. 학부형 간담회에 간다는 전제 아래 창하(남편)가 재란(아내)에게 어떤 옷을 다릴지 묻자 재란이 못 간다며 거절하고 당신이 가라며 남편에게 명령하고 있다. 앞에서 요즘의 부부관계는 성별에 있어 평등하지만 아직 권위주의적 의식이 남아 있어 남편이 상위자로 행동한다고 하였지만 (18)의 예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 실제 (18)의 드라마 상황에서는 남자가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돈을 벌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한다. 위의 두 가지 예를 통해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화자와 청자의 연령이 어떠한가에 따라 거절화행이 방식이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가족지위 내에서의 거절화행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가족지위는 상하관계와 동등관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화참여자의 관계로 인해 위계공손 방식이 사용된다. 동등관계라 하더라도 나이나 성별에 의해 위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또한 가족이라는 집단의 특수성으로 인해 지위와 나이에 상관없이 심리적 거리가 작용하여 유대공손 방식을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2) 직장지위에 따른 분석

직장지위는 가족지위와 달리 비혈연관계로, 수직관계가 엄격히 존재한다. 그리고 직장에서 직위와 나이가 같음을 일으킬 때는 대개 나이보다 직위가 더 큰 힘을 발휘한다. 상·하위자 간에 거절을 할 때에도 거절하는 대상, 성별, 심리적 거리, 공적 상황에 따라 공손에 따른 거절화행의 방식이 다를 것이다.

(19) 주리 : (와서) 같이 가요.

기풍 : 어딜 같이 가?

주리 : 댁에 가실 거 아녜요. 가다 저희 내려주세요.

기풍 : **나 집에 안 가.**

(19)는 주리(직장부하)의 요청에 대해 기풍(직장상사)이 거절한 예이다. 경어법 사용을 살펴보면, 부하인 주리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상사인 기풍은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주리의 요청에 대해 기풍이 ‘안’ 부정문을 사용하여 거절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상위자가 하위자의 제안이나 요청에 거절할 때 직접화행을 사용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0) 영미 : 예. 이제 오세요.(일어나며) 차?

주희 : **아냐, 됐어. 오면서 마셨어. 그리고 이제 너한테 커피 부탁 안 할거야.**

영미 : (다시 앉으며 본다)

(20)은 영미(직장부하)의 제안에 대해 주희(직장상사)가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발화를 살펴보면, 부하인 영미는 해요체를 사용하고 상사인 주희는 해체를 사용하고 있다. 상사가 부하에게 거절할 때 직접화행인 ‘아냐’와 ‘됐어’를 중복발화²⁾하고 거절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중복발화와 이유대기가 함께 나타나는 경우는 주로 하위자가 상위자의 제안이나 요청을 거절할 때이다. 그런데 하위자의 제안에 대한 거절로 상위자가 위와 같이 길게 표현한 것은 이전의 상황에서 주희가 자신의 상사에게 차 심부름을 당해 자신은 부하에게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한 앞상황으로 인해 중복발화와 이유대기를 사용하여 공손하게 거절하고 있다.

(21) 형철 : 그 얘기 끝났습니다. BBC에 Mr. 존스하고 구두 계약까지 마쳤습니다.

남 1 : 계약까지요? 우선은 김상무님이 준비하시는 거 끝난 다음에...

형철 : 이 회의에서까지 내 사람 남의 사람 가려야 합니까?

남 1 : 죄송합니다.

형철 : 장애야 있겠지만 자신 있다는 얘깁니다. 그럼 우선 담당피디부터 선정합시다. 저번에 멕시코 어린이 이 프로 들여와 연출했던 피디가 누구죠?

김부장 : 부르겠습니다.

형철 : (일어나며) **아니 그럴 필요 없어요. 일하는 중일텐데 내가 가서 만나죠.**

(21)은 김부장(하위자)의 제안에 대해 형철(상위자)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의 발화를 살펴보면, 상사인 형철은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부하인 남1과 김부장은 해요체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고 있다. 상사가 부

12) 노은희(1999:882)에서는 대화참여자가 상대방과 공감하는 바가 크면 반복표현을 통해 적극적으로 동의의 뜻을 전할 수 있고, 또 상대방 발화에 대한 뚜렷한 동의의 뜻은 없지만 반복표현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반복표현들은 공손성의 원리를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말하는 반복표현은 '형태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상대방 발화의 어휘요소를 재사용하여 발화를 구성한 것'을 말하나 의미가 겹치는 중복표현 역시 반복표현의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하의 제안에 거절할 때 직접화행 ‘아니’와 ‘필요없다’, 거절의 이유대기와 제안하기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21)에서는 앞의 (19), (20)의 예문과 달리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존대를 하고 있다. 이는 회의라는 공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직장지위에서 상하관계에 있더라도 공적 상황이라는 또다른 변수로 인해 거절화행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거절하는 형태를 생각해보면, 간접화행보다는 직접화행을 사용하여 거절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예상 외로 직접화행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직장에서의 서열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현대시대에는 기본적으로 서로가 동등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여 간접적으로 거절하거나 거절의 직접화행과 이유대기와 같은 간접화행을 결합시켜 거절하는 것이다.

다음은 하위자가 상위자의 제안이나 요청에 대해 거절하는 경우이다.

(22) 태환 : 다 왔어요.

희수 : 벌써요?

태환 : 여기서 어디루 가야 돼요? 오늘은 집 앞까지 가요.

희수 : **아니예요. 여기서 내릴게요.**

태환 : 마찬가지로 말 들어요.

희수 : 네. 저기 앞 신호들에서 왼쪽(하다가 멍)

(23) 형철 :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 차 한 잔 하고 가세요.(일어나는데)

영미 : **아니예요. 인사 드렸으니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다 아~배를 잡고 비틀)

형철 : 어.(받아 안는다)

영미 : (이웃고) 고맙습니다. (하고) 괜찮아졌어요.

형철 : (짐짓 웃으며) 수술하고 무리하면 안 되죠. 좀 쉬었다 가요.

영미 : **아닙니다. 가졌어요. 오늘 감사했어요.**

영미, 서둘러 나간다. 그런 영미를 보는데, 깨운치 않다.

(22)와 (23)은 남자 상사와 여자 부하의 대화상황이다. 모두 사적상황으로, 남자 상사의 호의적인 제안에 대해 여자 부하가 거절하고 있다. 지위적으로는 수직관계이지만 사적이라는 상황과 남녀라는 성별이 작용할 것이다. (22)는 희수(직장부하)가 태환(직장상사)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 서로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희수가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사적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공적 상황이라면 상사인 태환이 개인적인 호의와 배려를 베풀기도 힘들 것이다. 또한 부하인 희수 역시 직장 내에서는 본부장인 태환에게 해요체가 아닌 하십시오체를 사용할 것이다. 희수가 태환에게 거절할 때 직접화행 ‘아니에요’와 제안하기를 사용하여 공손하게 거절하고 있다. (23)은 영미(직장부하)가 형철(직장상사)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역시 사적 상황인데, 앞의 예문과 달리 부하인 영미가 거절의 직접화행인 ‘아니에요’와 거절의 이유를 하십시오체를 사용하여 깎듯하게 대우하고 있다. 이는 사적 상황이기는 하지만 업무 차 상사의 집을 방문한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에 맞는 경어법을 선택한 것이다. 뒤의 발화에서도 역시 형철의 제안에 대해 하십시오체와 해요체를 사용하여 공손하게 거절하고 있다. 위의 두 예에서는 수직관계에 있는 직장지위 내에서도 상황과 성별에 의해 거절화행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4) 태환 : 한 잔 하구 갈래?

근삼 : **술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요, 부모님 댁 갔다 왔더니 피곤하네요.**

태환 : 가...수고했어.

(24)는 태환(직장상사)과 근삼(직장부하)의 대화상황이다. 이들은 수직관계로, 태환은 해체를 사용하고 근삼은 해요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예는 사적상황으로 근삼이 태환의 제안에 대해 거절하는 상황이다. 근삼은 태환의 제안에 대해 거절의 이유를 대며 간접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일반적으로 직장상사의 제안에 대해 아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절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 태환은 본부장급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근삼이 피곤하다는 핑계로 술 마시기를 거절할 것을 보면 이들의 관계가 가까움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직장지위에서 ‘힘’으로 인한 서열이 중요하지만 ‘거리’에 의해서도 공손의 정도가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 하위자가 상위자에게 거절하는 형태를 살펴보면, 거절의 직접화행과 함께 이유대기나 다른 제안하기를 사용하였다. 이는 거절의 직접화행만으로는 상위자에게 건방지고 매정한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유나 다른 제안을 덧붙임으로써 거절의 이유를 정당화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윗사람에게 거절할 때는 간접화행을 사용하는 것이 공손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직장생활에서의 경우 간접화행이 오히려 일을 더디게 만들고 상대방에게 우유부단하다는 인상을 전달할 수도 있다. 조용길(2005:294-300)에서는 독일어의 경우 직무상 거절할 경우 비교적 단순한 문장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한국어는 완곡하고 복잡한 이유대기의 표현이 주를 이룬다고 하였다. 그러나 예문들을 검토한 결과, 직무상의 거절일 경우에는 완곡한 이유대기보다는 거절의 직접화행과 이유대기나 제안하기의 간접화행을 결합시킨 형태가 가장 흔하게 나타났다. 사적인 제안에 대해 거절할 경우에는 완곡한 이유대기나 제안하기의 표현이 주를 이루었다.

이상으로 직장지위 내에서의 거절화행의 방식을 살펴보았다. 직장지위는 수직관계가 엄격하게 존재하므로 기본적으로 대화참여자 간에 위계공

손 방식이 사용된다. 자료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동급관계의 직장동료라 하더라도 나이나 입사년월일에 따라 또다른 위계가 형성될 수 있다. 직장지위에서 서열이 중요하지만 대화참여자의 성별이나 심리적 거리,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유대공손 방식이나 상호공손 방식의 사용도 가능하다.

5. 맺음말

이 연구에서는 거절화행과 공손법의 개념과 관계를 규명하고 사회적 요인 중 특히 가족지위와 직장지위에 따라 공손법 관점에서 거절화행의 실현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공손은 상대방을 공경하며, 상대에게 겸손하게 행동함을 뜻하는 것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그에 반해 거절은 화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 즉, 거절화행은 본질적으로 공손을 거스르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상대방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는 거절화행을 공손하게 할 필요가 있다.

4장에서는 가족지위와 직장지위를 중심으로 거절화행의 실현양상을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을 통해, 가족지위와 직장지위에서 거절하는 대상, 나이, 성별, 심리적 거리, 상황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거절화행의 실현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자료 분석 결과는 두 집단의 성격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가족은 혈연관계로 아주 가까우므로 주로 간접화행보다는 직접화행을 사용하여 거절의 의사를 밝혔다. 직장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모인 집단이므로 개인의 일보다는 공적인 일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인간의 정(情)보다는 일의 정확성이 우선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예의를 중시하므로, 하위자는 상위자에게 거절할 때 이유나 제안을 덧붙임으로써 자신의 거절의 당위성을 정당화시키며 거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체

면손상 등의 부담감을 완화시키려 한다.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거절할 때는 예상과 달리 상대방을 대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접화행을 제시하거나 직접화행에 이유를 제시하는 형태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한국사회에서의 직장사회는 여전히 위계중심이지만 예전과 달리 서로를 대우하고 존중하려는 상호공손과 ‘정’의 인간관계를 공적인 일과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대공손이 어우러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공손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가족과 직장이라는 두 집단을 통해 각각의 집단의 특성에 따라 나타나는 거절화행의 공손성 정도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공손성은 간접화행, 이유대기나 제안하기, 호격어나 감탄사의 사용, 중복발화 등의 언어형식으로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자료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계량적 연구가 아니므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드라마 대본에서 나타나는 거절화행의 실현양상을 가족지위와 직장지위를 중심으로 다른 요인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므로 나름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더 다양한 사회적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들이 나오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1. 논문

- 강길호(1992), 「요청 상황에서 공손 전략과 공손 지각의 관계」, 『한국언론학보』 제28호, 한국언론학회, 5-31쪽.
- 강길호(1994), 「설득 메시지에 나타난 공손표현과 성별이 수용자의 태도에 미치는 효과」,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 논문집』.
- 고인수(1994), 「한국어의 ‘요청’ 행위에 나타나는 사회언어학적 공손성 연구」, 『영미어문학』 11-1, 한국영어영문학회 경남지회, 235-260쪽.
- 권혜선(2006), 「우리말 거절 표현의 공손성 연구」, 강릉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은희(1999), 「대화 공손전략으로서의 반복표현」, 『선칭어문』 27,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861-884쪽.
- 이성만(2005), 「사과행위의 예에서 본 공손성의 제 양상」, 『텍스트언어학』 18, 『텍스트언어학회』, 145-171쪽.
- 이원표(1996), 「한국 대학생의 칭찬 화행에 나타난 공손법 분석」, 『말』 21-1,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107-144쪽.
- 이정복(1997), 「방송언어의 가리킴말에 나타난 ‘힘’과 ‘거리」, 『사회언어학』 5-2, 한국사회언어학회, 87-124쪽.
- 이정복(2005), 「힘과 거리의 원리에 따른 국어 경어법 분석」, 『우리말 연구 서른아홉마당』, 태학사, 919-979쪽.
- 이정복(2006), 「‘힘’과 ‘거리’ 요인에 따른 탈춤 대사의 경어법 연구」, 『우리말연구』 18, 우리말학회, 87-121쪽.
- 이정희(2003), 「공손법 관점에서 본 거절표현의 남녀차-대학생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22, 일본어문학회, 173-194쪽.
- 전정미(2007), 「요청화행에 나타난 공손전략의 실현 양상」, 『한말연구』 제21호, 한말연구학회, 247-267쪽.
- 조용길(2005), 「독일어와 한국어의 거절화행 속에 나타난 공손현상의 비교연구」, 『외국어로서의 독일어』 제17집, 한국독일어교육학회, 283-309쪽.
- 조용길(2006), 「대화 속의 공손현상에 대한 연구」, 『독어교육』 제35집, 한국독어독문교육학회, 143-165쪽.

- 조준학(1986), 「공손의 조건」, 『영어영문학』 32-2, 영어영문학회, 267-316쪽.
- 허상희(2003), 『우리말 거절화행 연구-텔레비전 드라마 대본을 중심으로-』,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상희(2004), 「'됐어'의 화용적 기능」, 『우리말연구』 15집, 우리말학회, 173-190쪽.
- 허상희(2007), 「'괜찮다'의 화용적 기능과 특징」, 『우리말연구』 20집, 우리말학회, 260-280쪽.
- 허상희(2010), 『한국어 공손표현의 화용론적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Lakoff, R(1973), *The Logic of Politeness, or Minding your P's and Q's*, Proceeding of ninth regional meeting of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Chicago Linguistic Society.

2. 단행본

- Brown, P. & S. Levinson(1987), *Politeness: Some Universals in Language Usag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offman, E.(1967), *International and ritual: essays on face to face behavior*, Garden City, New York.
- Greenberg, J. H.(1966), *Universals of Grammar*, Second edition, Cambridge, Mass:MIT Press.
- J. L. Austin(1975), *How to do things with words*, Oxford University Press.
- Leech, G. N.(1983), *Principles of Pragmatics*, London: Longman.
- Levinson, S.C.(1983), *Pragmat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익환·권경원 역(1996)), <화용론>, 한신문화사.)
- Searle, John R(1969), *Speech Acts*, Cambridge University Press(이건원 역(1987), <언화행위>, 한신문화사.)

Abstract

The Aspect of Refusal Speech act from a Politeness Perspective
- Focused on family status and occupational rank -

Hur, Sang-He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refusal speech act and politeness in Korean and analyze the aspect of refusal speech act according to the social factor, especially family status and occupational rank.

The concept of refusal speech act is dispreferred response, the preceding utterance is offer, request and promise etc. Refusal speech act aims at refusing offer or request of others. So it hurts others' mind or face. Therefore speaker should use proper words, that is polite expression, to minimize uncomfortable situation, maintain relationship.

I have analyzed family status and occupational rank in drama script. Owing to property which has two groups, politeness of refusal speech act comes out differently. And the method of refusal speech act can appear differently according to relations of speaker and hearer, situation. Politeness of refusal speech act is expressed by indirect speech act, explaining reasons, proposing, using the vocative or exclamation, repeated utterance etc.

Key-Words : politeness, refusal speech act, social factor, family status, occupational rank

허상희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 (446-74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백현마을 모아미래도A 2501동 1201호

전화번호 : 051-510-1507, 010-3575-4616

전자우편 : sh1260@hanmail.net

이 논문은 2010년 4월 28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